

빠르게 늙어가는 전남

5명 중 1명이 노인... 전국 첫 초고령사회 진입

■ 전남 노인인구 추세(단위: 명)

	2013년 8월	2014년 1월	4월	7월	8월	9월
전체	190만5442	190만6363	190만7343	190만4195	190만3179	190만2350
노인	37만2088	37만5476	37만7788	38만469	38만1211	38만1856
비중	19.53%	19.70%	19.81%	19.98%	20.03%	20.07%

주민등록 65세 이상 20.7%
경북·전북보다 4~5년 앞서
복지 부담 급증 등 '부작용'

전남이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통계청의 표본조사나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전남에서 거주하는 주민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북·경북보다도 4~5년 앞선 것으로, 전체 인구는 줄고 노인은 증가하면서 전남이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지원 등 노인 관련 예산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젊은층의 부양비 증가, 성장잠재력 저하, 노인 학대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돼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남 인구 190만3177명 가운데 38만1211명이 65세 이상으로, 그 비중은 20.03%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 19.98%(190만4195명 중 38만469명)에서 0.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전남은 이에 따라 고령사회(고령 인구 14% 이상 20% 미만)에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지난 9월 말에는 20.07%(190만2350명 중 38만1856명)로 늘어났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말에는 190만5442명 가운데 37만2088명이 노인인구로, 그 비중은 19.53%였으나, 1년 사이 무려 0.5%포인트가 급증했다. 인구는 2265명이 줄었지만, 고령자는 9123명

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19%, 전북은 17.07%를 기록했으며, 이들 지역은 오는 2018년이나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남도의 노인복지예산은 5691억원으로, 전체 예산(5조8052억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에 인예산 3847억원보다 184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기초연금 예산이 4558억원, 복지시설 운영 등 408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317억원, 노인 돌봄서비스 197억원이 쓰인다.

또한 예산외의 빠른 고령화로 개인적·사회적으로 노후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연금 및 의료비 증가, 요보호 노인 수발, 노인 학대 등 다양한 노인 관련 문제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노인부양비 증가, 성장잠재력 저하, 투자 위축 등 부수적인 위험 요소도 도사리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결핵 등의 질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의 결핵환자(2129명)는 인구 10만명당 112명으로 전국 평균 89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도의회와 '노인 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갖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라며 "법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에 정부의 노인정책을 집중시켜 다른 시·도는 물론 전국이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여고생 '진로진학 콘서트' 대성여자고등학교는 15일 오후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클래식 피아노 연주와 인문학 강의 등이 결집된 '진로진학 콘서트'를 열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여고생들이 강사의 위트 있는 강의에 밝은 웃음으로 화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월호 6개월 '절망의 세월'

실종자 10명 아직도 바닷속에... 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은 정쟁으로 '표류'

세월호 참사가 16일로 6개월을 맞는다. 단원고 학생 245명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294명이 숨졌고, 10명은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치권이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3·6면〉
검찰이 지난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로 선사 측의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 등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총체적 진상 규명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외면과 국회 파행 등 정치권의 대립은 극심한 여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사회 전반에 더 큰 상처를 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심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특검후보군 추천과 관련, 4명의 후보군을 양당 합의로 특검후보추천위에 추천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장, 여야가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처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각각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심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다.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 문제와 진상조사위에 부여할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의 수위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에서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고, 유병언법

에 대해서도 은닉재산 추징에 대한 벌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여야 합의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 큰 갈등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 여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야당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0회 총동문체육대회
·일시 : 2014. 10. 18 (토) 09:00
·장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전화 : 062)520-4555
광주시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선

금리 연 2.0% 시대 '사상 최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종전 연 2.25%에서 2.00%로 인하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운영한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한은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분회의를 열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리고서 두달만에 다시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0%로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번 금리 인하

는 올해 성장을 전망지를 지난 4월 4.0%로 제시했다가 7월에 3.8%로, 이번엔 다시 3.5%로 연이어 하향 조정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미약한데다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등 대외 악재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주열 총재 "성장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봤다"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금통위원들의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일시: 10월21일(화) 오전10시 40분
장소: 광신대 은혜관 3층 대예배실
문의: 062)605-1000

'김한 체제' 광주은행 앞날은 ▶8면
오동도·벽화 골목
여수 가을여행 ▶18면

두근두근거리는 10월
또다른 삶의 스토리,
월산동 이스토리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남구 월산동의 가치를 누리는 또다른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광주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특급 조망권,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One-stop의 쇼핑문화, 광주·전남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 초·중·고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교육 프리미엄 등 안성맞춤의 라이프스타일을 월산동 이스토리에서 누리보세요.

e'STORY

주택전시관
10월 17일 OPEN

- 인기평형 구24형
- 무제한 전매 149세대
- 남향 배치
- 합리적인 분양가
- 돌고개 역세권

분양문의 1566-7293 시범 **대한주택개발(주)** 시공 **지구종합건설(주)** 시공